

수능 코 앞인데...광주 교육계 대혼란

광주 사립고 기말고사 이어 중간고사도 시험지 유출 파문

재시험 피해 불가피 속 학생·학부모들 학교 불신 팽배 우려
2년전 모 여고 학생부 조작사태 겪고도 시교육청 관리 부실

‘광주 사립고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관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광주 교육계 전체가 대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장 해당 사립고에 다니는 3학년 학생들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입수시전형에 응시하기 위해선 여름방학 전 재실시되는 기말고사에 이어 올 봄 치렀던 중간고사 전과목 시험을 다시 봐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해당 학교는 이날 시교육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일단 오는 19~20일 3학년 기말고사 재시험을 전과목(이과 9과목, 문과 10과목)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수사를 통해 이날 중간고사 부정마져 확인되면서 중간고사 재실시도 불가피해졌다.

광주 교육사상 한 학기 기말·중간 고사 재시험을 치르는 사태는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기말고사 시험 일정을 진행하는 것도 버거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기말고사 전제과목 시험을 치르는 경우에도 학사일정과 대입 수시 일정을 맞추기가 사실상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광주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년 전 광주 모여고에서 명문대 진학생을 늘리려고 생활기록부를 조작했던 사실<광주일보 2016년 9월 8일자 6면>이 경찰 수사로 밝혀진데 이어 이번 시험지 유출건까지 내신 성적관리에 총체적 한계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번 시험지 유출 사건이 ‘엔데즈지 마 음만 먹으면 시험지 유출이 가능하다’는

불신으로 이어져 학부모, 학생, 학교간 상호 불신 풍조가 만연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타 학교 학생들도 “우리 학교도 성적관리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당장 대입에서 우리도 불이익 받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이번 시험지 유출건을 일부 사립학교에 국한한 일탈로 보고 있다. ‘특정 사립고에서의 고사 관리 부실’과

‘아들을 의대에 보내려는 의사 학부모와 이에 호응한 학교 행정실장의 일탈’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험 관리감독에 사실상 실패한 시교육청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한다. 반복적인 시험지 유출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해당 학교 뿐 아니라 광주 시교육청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이 2년 전 모 여고의 사태를 겪었음에도 시험관리 지침만 규정해놓고 사실상 감독에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속적으로 ‘고사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했다면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목소리도 적잖다.

시교육청 지침대로 시험지 원안 및 인쇄

된 시험지가 포장, 봉인돼 관리됐다면, 발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범행 의지 자체가 꺾이거나 시험지 유출 자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시교육청은 이날부터 일반계고 52곳 전체를 대상으로 시험지 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으며, 주 중 학교장, 교감, 평가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한편, 3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 외부 유출 사실에 더해 16일 경찰 수사 등을 통해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까지 학교운영위원장 요청을 받은 행정실장에 의해 유출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외국인 학생도 힘찬 발차기

16일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2018 광주 국제태권도 아카데미’ 참가자들이 태권도 품새와 기술 등을 연마하고 있다. 오는 22일까지 열리는 이번 아카데미는 10개국 300여명의 수련생이 참가해 태권도의 가치와 정신을 배우고 한국과 광주의 문화를 체험한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조폭 두목 억울” 여운환씨 재심 촉구 당시 검사 홍준표 전대표는 미국으로

1990년대 드라마 ‘모래시계’에 나온 조폭력배 두목의 실제 모델로 잘못 알려진 여운환(65)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법원의 재심을 촉구하고 있다.

1992년 당시 광주지검 강력부 소속이던 홍준표 검사가 여씨를 호남 최대 폭력조직인 국제PJ과 두목으로 지목해 기소했다가 무죄선고를 받자, ‘자금책 겸 간부’라는 새로운 명칭을 만들어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게 여씨의 주장이다.

여씨의 재심촉구 탄원에도, 거침없는 언변을 쏟아내던 평소와 달리 침묵으로 일관

하던 홍준표(전 검사)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 11일 미국으로 떠났다.

16일 광주고법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부(재판장 최수환, 주심 박정훈)는 여씨가 지난해 12월 5일 자신의 무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폭처법)를 가려달라며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변호인과 검사 등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 중이다.

여씨는 지난 1992년 폭처법상 범죄단체 수괴(두목)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박모 조직원이 ‘공판 기일 전 증인신문조

서’에서 밝힌 자금책 겸 두목의 고문급 간부였다는 점이 인정돼 징역 4년형이 확정됐다.

하지만, 검찰이 공판기일 전에 증인을 불러 신문하는 내용을 기록한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조서’ 조항은 1996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려 폐지됐다. 법원의 법정 직접 신문에 앞선 신문은 증거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여씨는 “한때 억울함도 운명으로 받아들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인 재심청구를 포기할까 했다”면서 “하지만, 반성은커녕 ‘모래시계 검사’라는 거짓타이틀로 대권주자에 이어 야당 대표까지 승승장구했던 홍준표의 정계복귀만큼은 막아야겠다고 생각해 ‘재심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반찬 맛없다” 노모 폭행 철없는 50대 집행유예

광주지법 형사1단독(이기리 판사)은 “노모를 폭행한 혐의(특수준속상해)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노모가 선처를 탄원하고, 사건 직후 2개월 구금 기간에 진지하게 반성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5월 집에서 어머니(78)를 흉기로 위협하고 얼굴, 옆구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으로 노모와 함께 살던 A씨는 평소 맛있는 반찬을 해주지 않는다며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단속 피하려... ‘염전 노예’와 거짓 혼인신고 60대 실형

단속을 피하기 위해 속칭 ‘염전 노예’와 거짓 혼인신고를 한 60대 염전 여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지적 장애인과 거짓 혼인신고 등을 한 혐의(준사기·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신안의 한 염전주인 A(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적장애인 3급인 B(62)씨에게 힘든 염전 일을 시키고도 2015년 6월 임금 116만원을 포함해 지난해 9월까지 35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다.

A씨는 2014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피하려고 B씨와 거짓 혼인신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도와 해남 등을 거쳐 2009년 신안의

염전에서 일을 시작한 B씨는 2010년 6월 마을 사람의 소개로 A씨를 만났다.

이후 “염전 일을 도와주면 급여를 주겠다”는 말에 A씨 염전에서 일했으며 A씨 남편은 2013년 사망했다.

A씨는 ‘일과 부부’ 등의 뜻도 모르는 B씨에게 혼인 동의서를 받아 면사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경찰의 염전노예 수사가 진행되고 여주인이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자신이 결혼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횡령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등 죄질이 가법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내연남 외도 의심...성기 절단하려한 40대女 구속영장

내연남의 외도를 의심해 가위로 성기를 절단하려 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4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 24분께 익산시 자택에서 자고 있던 내연남 B(53)씨 성기를 가위로 절단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방에서 가져온 가위로 범행하려 했으나, 눈치를챈 B씨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다.

승강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B씨는 가위에 등을 2차례 찔렸고, 성기에도 상처를 입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내가 B씨를 찔렀다’고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1년 5개월가량 동거한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성기를 자르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읍=박희석 기자 dia@

구치소 수감자 온수통 옮기다 화상...국가 배상 판결

구치소에서 수감자들에게 나눠줄 온수통을 옮기다 화상을 입은 수감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 이영풍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6000여만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A씨는 2014년 2월 말 다용도실에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나눠줄 온수통을 옮기다 쓰러졌다. 이때 플라스틱 우유 상자 위에 세워뒀던 다른 온수통까지 쓰러지면서 100℃가 넘는 뜨거운 물이 몸에 쏟아져 심한 화상을 입었다. 온수 배식을 하는 중간중간

찬물을 온수통에 보충하려고 뚜껑을 꼭 닫지 않은 게 일을 키웠다. A씨는 평소 다른 수감자 한 명과 함께 온수 배식을 했지만 사고 당일엔 동료 수감자가 바빠 혼자서 일을 했다.

A씨는 국가의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 등이 이런 식으로 몇 달씩 온수 배식을 해 온 것을 구치소 측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온수통에 화상의 위험을 알리는 주의사항이 적혀있고, A씨가 온수통 뚜껑을 제대로 잠그지 않은 것이 손해 키우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국가의 책임을 절반씩 인정했다.

/박진표 기자 lucky@·연합뉴스

자기 집 꾸미려고 식당 앞 세워진 악어 석상 ‘슬쩍’

○... 50대 남성이 자신의 집을 꾸미기 위해 광주의 한 식당 앞에 세워진 악어 석상(石像)을 주인 몰래 가져갔다가 절도 혐의로 경찰서행.

○...16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A(52)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3시께 광주시 동구 대인동의 한 식당 앞에 놓여있던

600만원 상당의 악어 석상(높이 1.5m·무게 1t)을 크레인으로 트럭에 실어 화순에 있는 집까지 가져갔다는 것.

○...식당 주인의 신고로 CC-TV를 통해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석상 주변에 쓰레기 등이 있어 버려져 있는 줄 알고 집을 가져갔다”며 선처를 호소.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양시 중동, 근린상가, 회사 사정상 급매합니다.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중동 락히호텔 근처)
- 6층중 4층 전체(401호) 2012년 신축
- 210평 (실평 147평),코너, 전망최고
- 모든 업종 오픈가능
- 감정/시세 - 14억
- 급매 - 8억 8천만원 (분할매매 가능)
- 문의. 010-6834-7400

